
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 이슈리포트 (ISSUE REPORT)

코로나19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



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
Material Industrial Skills Council



목 차



코로나19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

요약	02
1. 개요	03
2. 코로나19와 철강산업 동향	05
2.1 세계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	
2.2 국내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	
2.3 수요산업 동향 및 전망	
3. 국내 및 철강업계 고용동향	11
4. 결론 및 시사점	13
※ [별첨1] 철강업계 주요기업 고용인원 동향('19.3 ~ '20.3)	16
※ [별첨2] 코로나19 영향 대응 정부 지원정책	17
※ 사용 자료 출처	18

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,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하실 수 있으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주시기 바랍니다.

〈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〉

이민우 책임연구원 minwoo.lee@ekosa.or.kr, 02-559-3533

요 약

코로나19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

□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‘팬데믹’ 선언

-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의 수요·공급 측면에 영향이 급속히 심화되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

□ '20년 세계 철강수요는 주요 수요산업 침체로 금융위기 당시 ('09년, ▲6.3%)와 비슷한 수준인 6.4% 감소한 1,654백만톤 전망

□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4월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이며 2분기부터 내수 및 수출 감소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

- 제조업·건설업 동반 침체로 철강내수 감소세 지속('09년 이후 첫 5천만톤 이하 전망)

- 자동차, 기계 등 제조업생산 감소로 판재류 수요 감소
- 주택경기 하락으로 봉형강·강관 타격

- 글로벌 수요 감소 속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(3천만톤 이하 전망)

- 중국 등 일부 지역 제외 철강재 수요 두자릿 수 감소
- 동남아 등 주력시장의 저가경쟁 불가피

- 수입재의 국내시장 공세 본격화

- 중국 재고증가 및 생산 정상화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
- 내수 침체로 물량 유입 제한적이나 저가재 유입 급증 전망

□ 최근 1년 간 주요 철강업체 33개사의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44,220명에서 44,453명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

- 고로사(포스코, 현대제철)는 483명(1.7%) 증가하였으며, 그 외 철강업체들은 동기간 동안 250명(-1.6%) 감소로 고용과 관련하여 상·하공정간 간극 존재

- 고용인원 감소기업은 19개사로 절반 이상이며,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추가 감소 우려

□ 철강산업 코로나19 영향 대응 방안

- 철강산업에 대한 긴급지원정책으로 인프라 관련 공공사업 추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완화, 온실가스 배출권 차입 한도 일시 유예 등 지원 필요

-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민관대응 및 온실가스 가격 안정화, R&D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등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한 제조기업 유턴 유도

- 철강산업 중장기 대응을 위해 업계에서는 노후 설비 구조조정 등 과감한 사업재편 및 신규 시장 확보, 수출시장 내 제품품질 고도화 및 新철강니즈 대응 소재 개발 필요

- 상·하공정간 연계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견·중소기업 육성 및 발굴로 철강 생태계 활성화

- 철강업계 숙련인원의 축적을 위해 교대제 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

- 기타 추가방안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분야에 철강산업을 포함하여 중소 철강업체 고용 보전 및 원활한 금융지원 제공

1 개요

□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‘팬데믹’ 선언

-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급속히 심화되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
 - 세계보건기구(WHO)는 1968년 ‘홍콩독감’, 2009년 ‘신종플루’ 이후 11년 만에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(2020. 3. 11)
- 코로나19는 발병초기 사스, 메르스 등과 비교되었으나, 발병국가, 감염자 및 사망자는 최근 주요 전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며, 급속히 전파됨
 - 현재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D614G¹⁾의 등장 및 최소 6차례 중요한 유전자 변이를 통한 면역 회피능력 증가로 초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

[표1] 코로나19 · 사스 · 메르스 비교

구분		사스	/	메르스	/	코로나19
원인		변종 코로나바이러스				
유행시기		2002.11~2003.7		2015.3~2015.7		2019.12~
발원지		중국 광둥성		사우디아라비아		중국 우한
발병국가		32개국		25개국		214개국
확진자 (사망자)	전세계	8,096(774)		1,367(525)		6,248,126(374,268)
	대한민국	4(0)		186(39)		11,503(271)
경제 성장률	전세계	4.3%		3.4%		-5.2%(f)
	대한민국	3.1%		2.8%		-0.2%(f)

* 주: 2020년 6월 1일 기준

** 자료: WHO,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/ 경제성장률: IMF, 세계은행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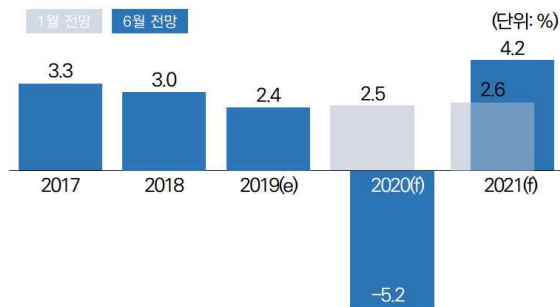
-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 모두 영향이 비교적 단기에 그치고 상황 종료 뒤 산업 회복이 빨라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은 3~4%대였으나,
-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언제 진정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도 -5.2%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이상 가파른 경기침체 전망

1) D614G: 지난 2월초 유럽에서 확산, 침투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2.4배 강해져 결과적으로 전염성은 10배 증가

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

- 세계 경제의 수요·공급 측면이 동시에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

[그림1]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[표2] 주요국 경기부양책 지원 규모

구분	금액	GDP 비중
미국	2조2,343억 달러 (약 2,726조원)	10.4%
중국	2조9,000억 위안 (약 502조2739억 원)	2.9%
프랑스	4,500억 유로 (약 608조원)	20.0%
독일	615억 유로 (약 82조원)	1.8%
일본	39.5조엔 (약 447조원)	7.1%
싱가폴	399억 싱가포르달러 (약 34조원)	7.9%
한국	270조원	13.8%

* 자료: 세계은행(WB)

* 자료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20.4.20.

- 세계보건기구(WHO), 올 가을에서 겨울 내에 2차 코로나 대유행 경고
 - 국제통화기금(IMF)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
 - 세계은행(WB), 183개국 대상 조사로 세계 경제성장률 -5.2%로 제시하는 등,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
 - 한국경제연구원,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제위기는 지속되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장기화될 전망
- 전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보건 관련 대책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장기화로 시장경제 붕괴위기에 정부정책 및 유동성 공급확대 등을 통해 경기부양 추진
- 기준금리 인하 및 내수활성화 등 직·간접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 노력
 - 한국은 ‘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 대책’ 발표 이후 지속적인 정부 지원 정책 발표²⁾

□ 이에 본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국내외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여 철강기업들을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- 코로나19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
-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
-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이슈 정리와 시사점 제공

2) [별첨2] 코로나19 영향 대응 정부 지원정책 참조

□ 세계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

○ (수요) '20년 세계 철강수요는 주요 수요산업 침체로 금융위기 당시 ('09년, ▲6.3%)와 비슷한 수준인 6.4% 감소한 1,654백만톤 전망³⁾

- '20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'21년 세계 철강수요는 3.8% 증가한 1,717백만톤(3.8%)에 이를 전망이나 코로나 사태 이전인 '19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- 미국, EU 등 선진국이 가장 큰 수요 타격 예상, 인도, 베트남 등 신흥국도 수요 감소 전망
- 중국 철강산업은 4월 말까지 상당한 수요 침체에도 불구하고 조기 산업 정상화로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며, 특히 정부의 건설, 인프라 관련 투자에 힘입어 세계 철강수요 감소를 일부 상쇄할 전망

[표3] 철강수요 단기전망(전세계 상위 10개국)

지역	철강수요(백만톤)			철강수요 전년비(%)		
	2019	2020	2021	2019	2020	2021
중 국	907.5	916.5	916.5	8.5	1.0	0.0
인 도	101.5	83.3	95.8	4.9	▲18.0	15.0
미 국	97.7	75.3	79.5	▲2.1	▲22.9	5.7
일 본	63.2	51.1	54.6	▲3.4	▲19.1	6.8
한 국	53.2	46.5	49.2	▲0.9	▲12.7	5.9
러 시 아	43.5	39.1	41.9	5.0	▲10.0	6.5
독 일	34.9	27.9	31.3	▲12.0	▲20.0	12.0
터 키	26.0	26.8	29.3	▲15.4	3.0	9.3
이 탈 리 아	25.0	20.5	23.9	▲1.2	▲18.0	16.6
베 트 남	24.3	25.0	25.8	9.0	2.8	3.3
전 세 계	1,766.5	1,653.9	1,717.4	3.4	▲6.4	3.8
중국제외	859.0	737.4	800.9	▲1.5	▲14.2	8.8

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20.6.4.

○ (가격)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철강 수요감소와 중국산 철강제품의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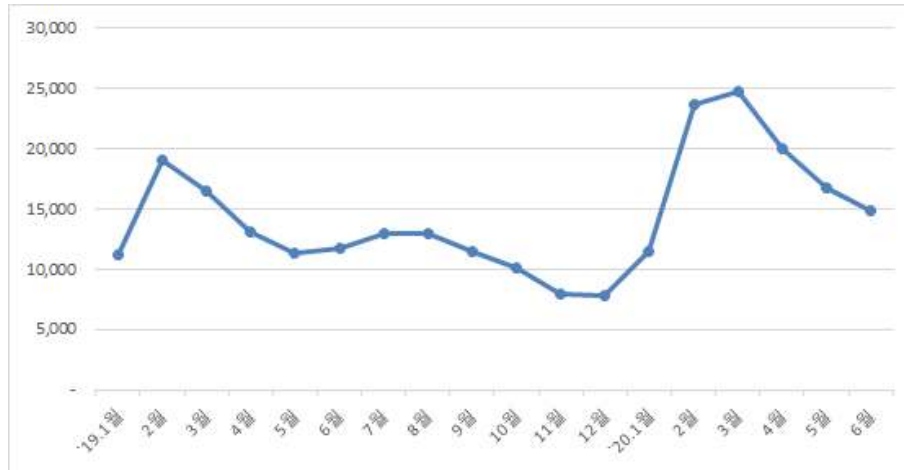
- 중국 내 철강 수요산업 조업 중단으로 인해 철강제품의 수요량 급감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중국 내 수급에 악영향 발생

3) [표3] 내용 참조

- 코로나로 인한 지역별 통제로 수송이 원활하지 못하고,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철강재 재고 증가
-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부터 재고량이 증가하였고, 수요산업인 자동차, 기계 등 생산공장 및 건설현장 폐쇄로 재고량 급증

[표4] 中 주요 품목별 재고량 추이

(단위: 천톤)



* 자료: steelhome, 자료 정리

* '20년 6월은 둘째 주 기준, 나머지는 마지막 주 기준

- 3월 말 이후 재고 하락세가 지속적이거나 연초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, 이는 중국 철강사들의 공급확대로 인한 현상으로 파악

○ (수요 구조 및 수출 전망)글로벌 철강 수요구조 및 수출경쟁 심화 예상

-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(SOC 투자 등)에 따른 수요산업별 영향 상이함⁴⁾
- '20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전년대비 20% 이상 감소할 전망이며, 건설업(봉형강류)은 각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상쇄효과로 영향 제한적
-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경쟁 및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자국 철강시장 보호조치로 수출 난항 예상

[표5] 주요국 철강산업 보호무역조치

국가명	내 용
미 국	5대 철강단체, 세관국경보호국(CBP)에 수입관세 완화하지 말 것을 촉구
E U	EU철강협회,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량 75% 삭감 요구(對 EU집행위)
중 국	미국, EU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5년 연장
ASEAN	코로나 사태 중에도 산업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무역구제조치 실행 중

* 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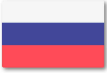
4) worldsteel은 2020년 건설용 철강재 수요가 전년대비 ▲1.9%, 자동차 ▲20.1%, 기계산업 ▲12.4% 감소 전망

□ 해외 철강업계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

○ 주요국 철강업체들 가동 중단 및 생산물량 감축, '20년 2분기 조강생산량 전년비 감소 전망

- 2분기 중 생산라인 일부 가동 중단 및 일부 업체들은 인력 정리해고도 추진

[표6] 해외 철강업계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

구분	내 용
	- 2월 춘절 연휴 이후 생산 중단, 2월말 이후 생산 재개 - 3월부터 지방정부 중심으로 생산량 조절, 재고 물량 감소 예상 - 하공정 분야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완전히 재개하지 못해 재고물량이 증가하며, 재정적 어려움
	- 신일본제철, JFE스틸, 고베제강 등 주요 고로업체들은 임금 동결 및 비용 절감 추진, 고로 정지 및 생산, 설비 축소
	-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소규모 유도로 공장 강제 폐쇄 명령 - SAIL은 정부의 봉쇄조치 및 최종 사용자, 무역업체 구매 감소로 생산량 절감으로 감소 - 타타스틸은 철광석 광산은 정상적 운영 중이나 제련시설은 생산량 감소 착수, 하공정 라인은 가동중단(관리 및 유지보수)
	- US스틸은 일리노이주 남부의 제철소를 60여일간 가동중단, 또한 유가 급락으로 인해 5월말까지 강관공장 가동도 중단하였고, 1분기 판매량이 전년동기비 △14% 감소 - 아르셀로미탈은 미국, 캐나다 고로 용량 감축 계획 발표, 1분기 영업손실액은 3억5천만달러 - 테나리스는 3월 31일 공장 운영 중단으로 560명 포함 및 코로나 관련 총 900명 해고 - 기타 여러 제철소 및 건설자재 공장 모두 생산을 중단
	- 포모사 하띤 제철소 제품 가격 인하 - 호아팟 그룹 가동 예정인 고로의 운영을 연기
	- 3월 전국적 이동제한조치로 대다수 철강업체 가동 중단, 4월 재개 이후 원자재 공급 지장으로 생산에 난항
	- 아르셀로미탈은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전염병 기간동안 일부 장비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 예정 - 3월 21일 정부가 제철업을 포함한 모든 비필수적 생산공장 폐쇄를 명령
	- 산업부로부터 필수 업종으로 승인받았으나 가동 재개하였으나 상당부분 생산물량 감축
	- 노볼리페츠크제철은 신사업 추진 연기 및 생산물량 감축 예정
	- 티센크루프는 3월 25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구조조정안에 맞춰 2026년도까지 3,000여명 구조조정할 계획이며, 엘리베이터 매각에 이어 기업의 모태인 철강 부문 매각 협상 중

* 자료: 철강금융신문, '세계 철강업계, 코로나19 확산에 가동 중단 줄이어', 2020.4.8 자료 정리

□ 국내 철강산업 현황 및 전망

○ (동향) 내수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

- 코로나19의 영향이 4월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이며 2분기에는 내수 및 수출 감소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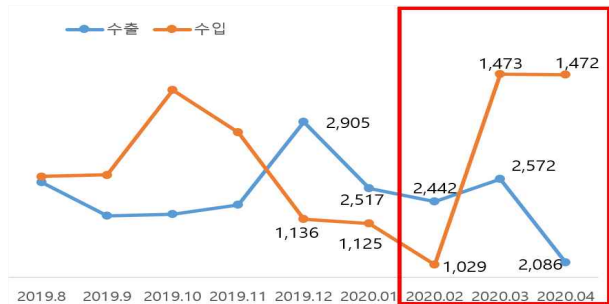
[표7] 국내 철강수급 동향

	내수	수출	생산	수입
1~2월	▲6.6%	▲4.1%	▲1.6%	▲32.7%
3월	▲7.3%	+2.6%	▲3.9%	▲3.9%
4월	▲6.4%	▲15.8%	▲9.6%	▲10.2%

* 자료: 한국철강협회, 전년동월비

[그림2] 국내 월별 수출입 추이

(단위: 천톤)



* 자료: steeldata, '19~'20.4

- 내수: 자동차, 조선⁵⁾ 등 수요산업 침체로 감소세 지속(4년 연속 감소세)

* 내수시장 규모(백만톤) : ('16) 57.1 → ('17) 56.3 → ('18) 53.7 → ('19) 53.2

* 판재: 냉연, 아연도강판 등 자동차용 감소폭 최대

* 봉형강: 주택경기 침체로 철근 1천만톤 붕괴

- 수출: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규제 강화로 9년간 유지되던 연 3천만톤 지지선 붕괴, 가격경쟁력 약화 및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경우 더 심각해질 우려 상존

* 미국, 유럽, 일본,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폭 증가

- 수입: 국내 최대 철강재 수입국인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'밀어내기 수출'로 인해 지난 2월 대비 3, 4월 철강재 수입량 급증

* 중국발 수입량: 2월(459,694톤) → 3월(809,277톤) → 4월(771,374톤)

○ (전망) 최근 3년간 연속 내수 감소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 가세로 산업 위기 고조 예상

- 올해 내수 12.7% 감소 예상⁶⁾, '09년 이후 처음 연간 5천만톤 이하 전망

- 냉연, 아연도강판 등 자동차용 감소폭 최대, 주택경기 침체로 철근 1천만톤 붕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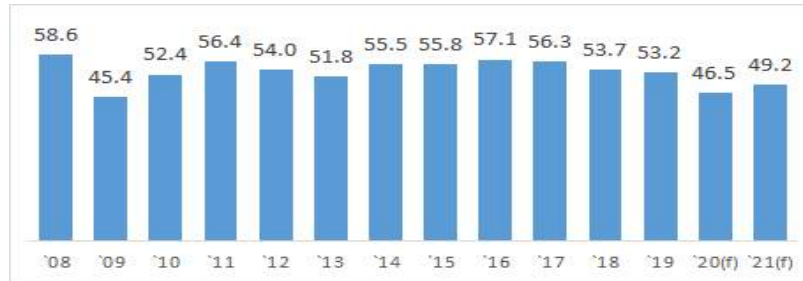
5) 카타르 LNG선 23조 수주로 100척 이상 공급 예정이나 이와 관련한 실제 주문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

6)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2020.6.4.

-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도 한동안 이전 수준의 내수시장 규모로 복원 난망

[그림3] 국내 철강수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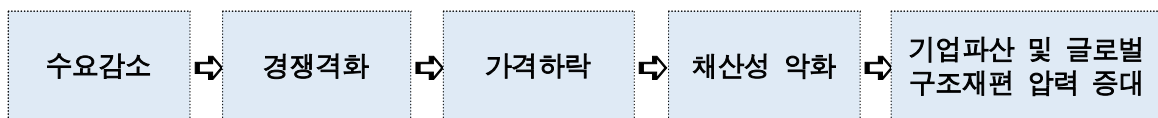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톤)



* 자료: worldsteel

○ (종합) 국내 철강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 침체 심화

[그림4]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구조도



*자료: 포스코경영연구원, 철강산업의 코로나19 영향 및 향후 전망, 2020.5

- 국내 및 세계 수요산업 수요 감소, 각 국의 보호무역조치 등 연쇄 발생
- 자국 내수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향후 글로벌 수출경쟁 불가피
 - 수요 감소세가 적은 인도, 베트남 등 신흥국은 주요 수출국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 다분

○ (과제)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 주도의 단기 대응 및 철강업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필요

- 내수시장 복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 필요
 - 한국판 뉴딜정책 대형 인프라사업(항만, 철도)과 민관협력 SOC사업 등
 - 철강산업 중장기 대응을 위해 위기 이후 시장 선점을 위한 민관협력의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
 - 노후 설비 구조조정 등 과감한 사업대편 및 신규 시장 확보
 - 수출시장 내 제품품질 고도화 및 新철강니즈 대응 첨단소재 개발 필요
 - 신 기후협약 이후, 환경에너지 관련 비용 증대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
 -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우려
 -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, 배출권 가격 지속 상승
- * 정부의 과도한 예비분 물량 보유

□ 수요산업 동향 및 전망

[표8] 자동차 · 조선 · 일반기계 동향 및 전망

	자동차	조선	일반기계
수요 요인	· 자영업, 관광업 등 침체에 따른 구입 지연 ·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및 생산(부품 수요) 감소	· 해운 상황 악화, 기자재 수입과 인력이동 제한 · 고부가품목 생산 · 인도 지연 · 카타르 LNG선 23조 수주로 100척 이상 공급 예정이나 실제 생산은 1~2년 후	· 수요산업의 생산과 투자위축
생산 요인	·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, 장기화 시 부품조달 애로 · 현지 수요 감소에 따른 해외 생산 물량 감소	· 건조일정 차질, 발주처 인수지체로 인한 인도지연 가능성 확대 ·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 감소	· 내수시장 위축 및 수출 하락, 인력이동 제한 · 중국 국내 기업의 기계생산 감소 · 태국,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지 이전 가능성 확대
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	· 판매감소, 물류 및 조달, 일정치 못한 작업 등 비용 증가	· 운송비, 긴급작업의 증가로 소폭 악화	· 영업비용 증가, 납기 미준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
공급망에 미치는 영향	· 해외의존도 낮지만(12%), 인젝터, 디젤엔진 부품, 차량용 반도체 등 EU 의존도 높음	· 국내 조달 비중 확대로 대체 가능 · 인력이동(인수 선원, 서비스 엔지니어) 제한에 따른 차질 우려	· 해외의존도 낮지만(10% 미만) 인력이동 제한, 일부 제조장비 조달 차질 우려(일본, 독일)
유망제품군	· 클린 모빌리티	· 스마트선박 솔루션	· 반도체 제조용기계, 원격관리시스템 통신장비
위협제품군	· 소형상용차, 상용차 전용부품	· 컨테이너선, 해양플랜트	· 건설기계, 공작기계
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	· 동남아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 · 스마트제조 전략으로 국내 조달 확대 필요	· 유럽 기자재 국내 유치, 중국 블록공장 복귀 가능	· 일부 조달 품목의 신흥국 다변화

* 자료: 철강보 4월호, 코로나19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. 2020.4

3 국내 및 철강업계 고용동향

□ 국내 고용 동향

- 2020년 4월 취업자는 2,65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6천명(-1.8%) 감소, 고용률은 59.4%로 전년동월대비 1.4%p 하락, 실업자는 1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(-5.9%) 감소, 실업률은 4.2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
- 임시·일용직 전년도 대비 14만 4천명 감소(7.9%), 기타종사자 8만 7천명(7.5%) 감소
-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숙박·음식점업 종사자가 16만6천명(13.1%) 감소, 교육서비스업 9만3천명 감소(5.8%), 여행업·렌터카업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(5만9천명, 5.1%) 종사자 감소
- 사업체들의 채용 연기 및 취소로 지난달 신규채용은 1년 전 대비 11만 2천명(13.3%) 감소, 상용직과 임시·일용직(43만1천명, 10.6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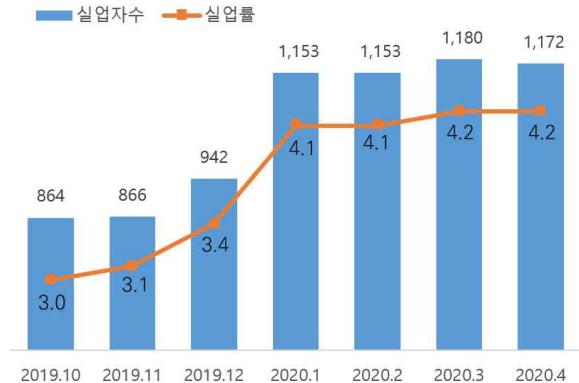
[그림5] 취업자 증감* 및 고용률

(단위: 만명, %)



[그림6] 실업자 수 및 실업률

(단위: 만명, %)



* 전년동월대비 증감 인원

** 자료: 고용노동부, 4월 고용동향, 2020.5

- 제조업 중분류를 살펴보면, 전자통신 그리고 자동차, 금속가공 등 대다수 산업에서 감소 추세가 심화, 반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일부 업종에서 수요 증가나 수출 호조로 증가세 유지
- 향후 제조업 고용상황은 미국, EU 등 주요 수입국의 코로나19 진정 추이 및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코로나19로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'경계'에서 '심각'으로 격상되고 '사회적 거리 두기'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(기업 3군데 중 1곳 '하반기도 불투명' 예상)7)

- 한국경제연구원의 2월 채용조사에 의하면 대기업들 가운데 50%가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축소 예정이거나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
- 삼성전자는 예정되었던 입사시험을 몇 차례 연기 후 5월 30일~31일 온라인으로 직무적성검사(GSAT)를 시행하였고, SK, 현대차그룹, 롯데그룹, CJ, 포스코 등 인재채용을 연기하여 진행
-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기업의 온라인 채용으로 비대면 채용이 뉴노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업 내 관심도 증가

□ 철강업계 고용동향 * 첨부문서 참조

- 최근 1년 간('19.3~'20.3) 주요 철강업체 33개사를 조사한 결과 44,220명에서 44,453명(0.5%, 233명)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전체 고용인원 절반 이상의 점유율(약 65%)을 차지
- 고로사(포스코, 현대제철)는 483명(1.7%) 증가하였으며, 그 외 철강업체들은 동기간 동안 250명(-1.6%) 감소로 고용과 관련하여 상·하공정간 간극 존재
 - 포스코 고용인원은 17,7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명(2.6%) 증가
 - 매년 퇴직자가 4~600여명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고용 규모는 1천여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, 전체 철강업계 고용인원 전인
 - * 포스코는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'18~'23년까지 2만명 고용 계획
 - 현대제철은 11,700명으로 소폭 상승(0.3%, 33명)하였고, 동국제강 등 철근제조사인 대한제강, 한국철강의 직원 수가 크게 감소⁸⁾
 - 동국제강 및 대한제강의 경우 정년퇴직인원에 대한 신규 채용 대신 직무조정을 통한 자연 감소 부분
 - KG동부제철은 1,153명으로 470명(68.8%) 증가하였으나 동부인천스틸 합병에 의한 것이며,
 - DSR제강의 경우 168명으로 46명(37.7%)이 증가하였는데 하도급 직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고용으로 보기 어려움
 - 가장 큰 감소세(-46명, -52.9%)를 보인 동일철강은 제2공장 형강사업부 생산중단으로 인한 영향으로 파악

7) 인크루트, 284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 '포스트 코로나, 2020년 신입채용 시기전망'에 대한 조사 결과

8) 동국제강(78명 감소), 대한제강(40명 감소), 한국철강(20명 감소)

- (경쟁력 강화) 글로벌 수요 위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경쟁 격화 대응
- 향후 예상되는 무역분쟁 격화에 민관 협력을 통해 대비 필요
 - 철강교역제도 개선 및 철강재 수입신고의 정확성 확보(관세청, 세관)와 유통이력 관리제 적용범위 확대 및 사전수입 신고제도(미국, EU, 인도 등 운영) 제도입 등 필요
 - 코로나19 및 저유가로美에너지 시장 침체로美업체 및 정치권의 한국산 유정관 수입에 대한 추가 수입규제 우려
 - 장관 관련 공공사업의 조기추진 및 신규 장관수요 창출사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필요
- (정부 정책 완화) 제조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산업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조정 및 온실가스 배출권 차입 한도 유예 등을 통한 부담 완화 필요
- 현재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7.8%로 주택용 원가회수율 82.7%에 비해 높은 수준
 - * EU 철강업체는 COVID-19 영향으로, 전기요금 인하 건의(간접 탄소비 보상비율을 75%에서 85%로 상향)
 - 탄소배출권 차입 한도 일시 유예 및 가격안정화와 R&D 투자사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등 업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조기업 유턴 유도로 고용효과 및 국내 생산 매출액 확대

[표9] 업종별 제조기업 유턴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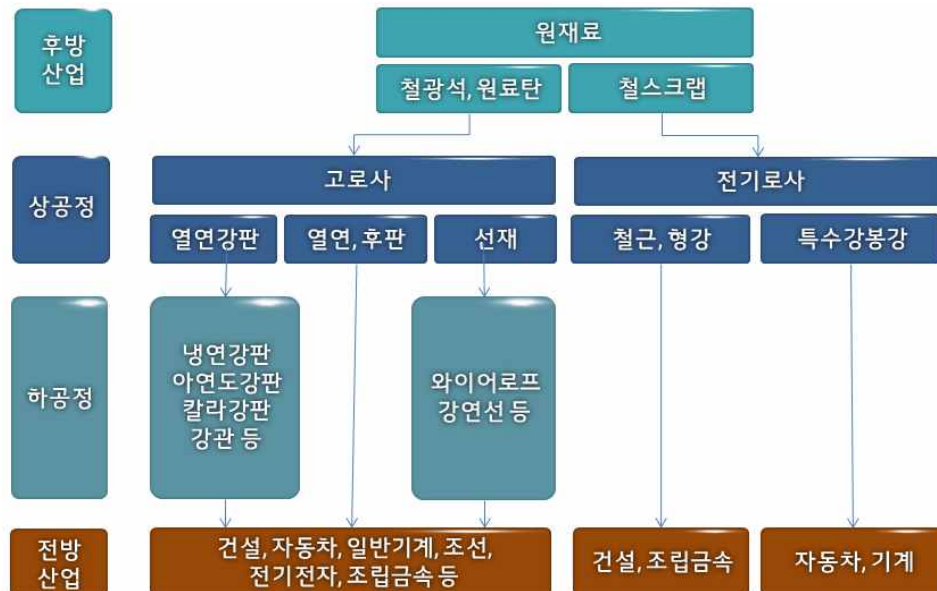
업종	자동차	전기전자	전기장비	1차금속	화학	기타기계
고용효과	42.7천명	31.7천명	10.5천명	10.1천명	6.5천명	3.7천명
생산유발액	12,141십억원	12,629십억원	3,211십억원	2,281십억원	1,022십억원	2,842십억원
부가가치유발액	4589십억원	3,621십억원	903십억원	693십억원	343십억원	929십억원

* 자료: 한국경제연구원, 2020.4

□ (업계 대응) 철강산업 중장기 대응을 위해 업계에서는 노후 설비 구조조정 등 과감한 사업재편 및 신규 시장 확보, 수출시장 내 제품 품질 고도화 및 新철강니즈 대응 첨단소재 개발 필요

- 고로사(포스코, 현대제철)의 경우 상·하공정체제 구축으로 원가변동 흡수, 다양한 제품포트폴리오, 하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전가력(원가 상승분 제품가격에 반영)으로 업황대응력이 우수⁹⁾하여 피해 최소화
- 하지만 중소·중견철강업체의 경우 업황대응력이 높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 강화
- 상·하공정간 연계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견·중소기업 육성 및 발골로 철강 생태계 활성화

[그림7] 철강제품 생산공정도



* 자료: 2019년 재료ISC 1분기 이슈리포트, 2019.3

□ (금융 지원 강화)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최초 예상보다 막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철강업계 경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필요

- 재료ISC 운영기관인 철강협회와 산업부는 철강 유동성 위기 신속 대응팀 운영으로 업계의 유동성 정책금융 애로사항 접수 및 금융기관간 정책금융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마련

9) 한국신용평가, '2018 하반기 KIS Credit Issue Seminar'(2018.9.19.)

- (철강상생협력펀드¹⁰⁾ 지원) 철강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,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철강 중견·중소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1,000억원 규모의 펀드
 -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(포스코, 현대제철 동시 거래시 최대 20억원)으로 철강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 추천을 받은 기업 중 신용등급 BB+ 이상인 중소기업에 지원
- (고용전망 및 단기적 대응 방안) 이 보고서의 철강업계 고용 조사자료가 시점 상(3월) 당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우나 현 상황 장기화 시 고용 회복 불투명
 - 자체 조사결과 현재 신규 고용 예정 중인 기업은 많지 않으며, 몇몇 기업에서는 퇴직인원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인원을 조정 중
 - 미래 필요 숙련인원의 축적을 위해 교대제 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 및 일자리 확보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¹¹⁾ 활용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¹²⁾ 등에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음
 - 기타 추가방안으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분야¹³⁾에 철강산업을 포함하여 해당 기금 조건사항인 고용 총량의 90% 유지 항목으로 중소기업 철강업체 고용 보전 및 원활한 금융지원 제공 필요

10) 철강상생협력펀드 신청 안내: http://kosa.or.kr/news/news_view_2011.jsp?index=8895

11)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: https://www.ei.go.kr/ei/html/ems/03_03_03.html

12)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내: <https://www.gov.kr/portal/ntnadmNews/2184987>

13)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은 항공, 해운, 기계, 자동차부품

□ [별첨1] 철강업계 주요기업 고용인원 동향('19.3 ~ '20.3)(32개사)

(단위: 명)

순번	업체명	2019.3	2020.3	증감인원	증감비(%)
1	포 스 코	17,314	17,764	450	2.6
2	현 대 제 철	11,667	11,700	33	0.3
3	동 국 제 강	2,563	2,485	-78	-3.0
4	세 아 베 스 티	1,549	1,544	-5	-0.3
5	세아창원특수강	1,200	1,192	-8	-0.7
6	고 려 제 강	878	861	-17	-1.9
7	K G 동 부 제 철	683	1,153	470	68.8
8	세 아 제 강	678	650	-28	-4.1
9	휴 스 티	577	565	-12	-2.1
10	한 국 철 강	534	514	-20	-3.7
11	태 웅	491	493	2	0.4
12	동부인천스틸	476	0	-476	-100.0
13	대 한 제 강	466	426	-40	-8.6
14	현대비앤지스틸	434	444	10	2.3
15	금 강 공 업	426	402	-24	-5.6
16	포 스 코 강 판	417	422	5	1.2
17	동 국 산 업	391	377	-14	-3.6
18	한국특수형강	371	383	12	3.2
19	영 흥 철 강	369	352	-17	-4.6
20	디 비 메 탈	341	337	-4	-1.2
21	환영철강공업	289	284	-5	-1.7
22	세 아 특 수 강	287	284	-3	-1.0
23	T C C 스 티	274	275	1	0.4
24	동 일 산 업	255	244	-11	-4.3
25	하 이 스 티	208	210	2	1.0
26	한 국 선 재	191	197	6	3.1
27	화 인 베 스 티	167	168	1	0.6
28	동 양 철 관	161	171	10	6.2
29	만 호 제 강	158	150	-8	-5.1
30	동 일 제 강	131	129	-2	-1.5
31	D S R 제 강	122	168	46	37.7
32	동 일 철 강	87	41	-46	-52.9
33	삼 강 엠 앤 티	65	68	3	4.6
총 합 계		44,220	44,453	233	0.5
고로사(포스코, 현대제철)		28,981	29,464	483	1.7
고로사 외 31개사		15,239	14,989	-250	-1.6

* 자료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

□ [별첨2] 코로나19 영향 대응 정부 지원정책

일자	지원정책 내용
2월 28일	‘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’ 발표 ·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: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(5%→1.5%) ·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 16조 (‘18년 GDP의 0.9%) - 소비쿠폰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2.8조, 소상공인 대출 등 2.5조원 - 금융기관 지원 9조원: 금융중개지원대출, 공공기관 투자 확대, 금융권 공급 확대 등
3월 4일	추경예산 11.7조원 (‘18년 gdp 대비 0.6%) 편성: ·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및 코로나19피해 회복 지원
3월 18일	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(항공·교통, 관광·공연, 수출, 해운 분야) · 항공: 착륙료 감면,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임대료 전액 면제 · 교통: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고속버스 운행 횟수 탄력 운영 · 관광: 무담보 특별융자 500억 확대 (500억→1,000억) · 수출: 중소/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천억 추가지원 · 해상: 한일 여객선사 대상 항만시설 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
3월 24일	경기도,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소득세 지급 (총 1.4조 원 규모) · 정부, 민생·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: 100조원 (‘18년 GDP의 5.3%) · 기업자금 지원 58.3조: 중소기업 대출 확대 21조, 신용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8조 등 · 금융시장 안정유지 41.8조: 채권안정펀드 20조,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7조, 증권안정펀드 11조
3월 30일	정부, 소득 하위 70%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.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 ·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재원은 9.1조원으로 추정되며, 2차 추경을 통해 7.1조를 조달하고 지방 정부에서 2조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힘
4월 1일	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Ⅲ (관광, 영화, 통신·방송 분야) · 관광: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,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%로 상향 (25%→50%)하고, 대·중견기업 임대료 20% 신규 감면 · 영화: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한시 감면 (‘16~‘19년 연평균 540억원) · 통신: 대리점 임대료, 운영자금 지원 등 2,500억, 공사비 조기지급 등 1,600억
4월 22일	총 10.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추진 (286만명 지원) · 소상공인, 기업 고용유지 지원 0.9조원,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1.9조원 · 공공근로 등 긴급 일자리 창출 3.6조원, 구직급여, 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3.7조원 · 기업 안정화 지원대책 추가 발표 (기존대책 대비 +75조원 상향) ·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상향 (+35조원):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+10조원,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매입 +20조원 등 · 기간산업에 대해 안정기금조성 (+40조원): 항공/해운/자동차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
4월 30일	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규모의 2차 추경안 통과 · 전국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, 2인 60만원, 3인 80만원,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
5월 7일	정부,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·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추진 · 데이터/ 5G/ 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,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, 국가기반 시설 및 물류서비스의 디지털화
6월 3일	세입경정, 금융패키지 지원, 고용대책 뒷받침,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·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(11.4조원) · 위기업·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(5.0조원) · 고용·사회안전망 확충 + 경기보강 패키지 (18.9조원) ※ 3차 추경까지 포함 시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약 270조원 수준 (250조원 + 3차 추경 35.3조원, 중복 약 14조원 제외)

* 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리



사용 자료 출처

[문헌]

- 고용노동부, 4월 고용동향, 2020.5
- 고용노동부,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, 2020.5
- 대한건설정책연구원,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
- 삼정KPMG 경제연구원,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, 2020.3
- 철강보, 코로나19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, 2020.4
- 포스코경영연구원, 철강산업의 코로나19 영향 및 향후 전망, 2020.5
- 포스코경영연구원, Post-코로나19 철강산업 비전과 과제, 2020.5
- 하나금융그룹,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, 2020.4.8
- 한국경제연구원, 코로나19 종식돼도 경제위기는 지속,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장기화
- 한국경제연구원, 보도자료, 코로나19發 실업, 제조기업 유턴으로 돌파!
- 한국신용평가, '2018 하반기 KIS Credit Issue Seminar'(2018.9.19.)
- 한국은행, 국제경제리뷰 「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」 2020.4.9.
- 한국철강협회, 철강산업의 코로나19 영향, 2020.4.16.
- 현대경제연구원, 경제주평 「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」
- 한국신용평가, '2018 하반기 KIS Credit Issue Seminar', 2018.9.19.

[홈페이지]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정책자료실
-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
-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- 보도자료
-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- 정책자료실
-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- 국가별 대응정책
-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- 지원금별 안내 - 고용유지지원금

[언론사]

- 산업경제, [4월특집] 코로나19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
- 페로타임즈, 철강업계 고용불안...현대제철 4분기만 172명 감소, 고용 늘린 기업은?